



데스크
칼럼 _

‘AI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맞춰...

본지 김한웅 부장

그 어느해보다도 뜨거웠던 더위도

9월로 들어서면서 한풀 누그러진 모습이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온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벌써 몇 년째 우리 육계업계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파걱정에 저절로 한숨이 쉬어지는 형상이다.

본회는 지난달 2일 이사회를 개최, ‘AI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했다. 아직까지 ‘AI’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굽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AI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키로 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4년 3월 AI 종식선언 후 3년여가 지나도록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동남아에 이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빠르



게 확산되고 있는 AI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닭고기 섭취에 대한 막연한 불안심리의 확산으로 국내 닭고기 산업이 2년에 걸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동남아에서만 AI로 인한 사망자수가 60여명이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일 언론은 AI 피해보도에 나섰고 그 영향으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닭고기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9월 하반기 이후 한달 보름 여만에 언론을 통해 노출된 AI보도 건수는 방송매체가 754건, 신문매체가 2천6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것이 3천987건으로 총 6천7백여 건에 이르러 AI 언론 홍수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닭고기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결국 뒤늦게 얻은 교훈은 우리가 내부단속만 잘해서는 AI의 여파를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AI는 국내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며 전파경로가 철새로 굳어지고 있는 이상 다각적인 방면에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계육업계는 지난해 이미 경험한 것이다.

닭고기 소비가 20~30%이상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위기감에 뒤늦게 가금관련산업 대표자들이 'AI 비상대

책위원회'를 구성, 각 언론사를 방문하면서 AI에 대한 보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과 함께 에이비안 인플루엔자의 용어를 'AI'로 통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악전고투(惡戰苦鬪) 끝에 각 언론매체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AI'로 통일하여 사용한다는 성과 아닌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순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물론 'AI' 걱정을 안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바람이다. 따라서 어차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 사전에 'AI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 언론 홍보를 비롯하여 농가교육, 대소비자교육을 실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내에서 AI가 발생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그나마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뎠고 언론이 보도를 자제하는 것은 일단 국내에서 아직까지 AI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일 국내에서도 AI가 재발한다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육계사육농가들에게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닭고기 관련업계를 비롯해 방역당국, 농가, 계열주체 모두가 한 순간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